

박은빈 “‘스토브리그’ 덕에 올겨울은 따뜻했죠”

“‘스토브리그’ 덕에 2020년의 겨울은 따뜻했어요.”

SBS 금토드라마 ‘스토브리그’ (극본 이신화/연출 정동운)에서 드림즈의 최연소 운영팀장 이세영 역할로 열연한 박은빈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카페에서 중영 인터뷰를 갖고 드라마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

박은빈은 지난 14일 종영한 ‘스토브리그’에서 드림즈의 최연소 운영팀장 이세영 역할을 맡아 드림즈에 새로 부임한 백승수(남궁민 분) 단장과 함께 연일 사이타 행보를 보이며 시청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선수들과의 연봉협상 과정에서 포수 서영주(차영분)의 선 넘는 행동에 박력있는 반격을 가하는 모습은 ‘스토브리그’의 명장면으로 꼽히며 화제를 모았다.

다음은 박은빈과 일문일답.



-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중영했는데.

▶사실 저는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시청률에 대한 기대보다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다. 촬영할 때 웃으면서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는 목표였는데 그건 촬영을 하면서 이뤄졌다는 생각에 만족한다. 게다가 시청률까지 기대이상으로 나와서 기분이 좋았다. 근데 인기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영을 앞두고 있을 때 사인 요청이 들어오면서 드라마를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느꼈다.

-야구는 원래 좋아했나.

▶야구를 정말 잘 정도만 아는 정도였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건 저희 어머니였다. 유명한 경기,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으면 옆에서 보는 정도였다. 크게 매니아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야구 운영팀장 역할을 하면서 공부할 하게 됐다. 그러면서 야구 만의 아름다운 매력을 엿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인생 캐릭터라는 평도 많았는데.

▶인생 캐릭터라고 얘기해주셔서 감사하다. 사실 제가 그 만큼 한 사람의 몫을 제대로 하기 위해

노력한 건 맞지만 또 그만큼 잘한 건지는 모르겠다. 부족했던 부분은 다음에 또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생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을 또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시즌2에 대한 바람은 없나.

▶시즌2는 너무나 불확실한 게 많은 미래라 확답을 제가 할 수 없겠지만 시즌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있다. 저 또한 이런 좋은 멤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도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기다리고 싶다.

-‘스토브리그’는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 같나.

▶드라마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여자 배우가 없었던 환경이 처음이었다. 그러다보니 다른 팀장님 과도 돈독한 유대 관계를 형성한 것 같다. 한 팀인 것 같다는 동료애를 많이 느꼈던 작품이었던 것 같다. 또 2020년 겨울은 참 따뜻했다는 의미로 남은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최연소 여성 운영 팀장을 그려내기 위해 중점을 둔 부분이 있나.

▶초반에 SK 와이번스에서 협조를 잘 해주셨다. 거기에서 운영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실제 프런트 중에서도 여자가 별로 없고, 운영팀장으로서 저처럼 어린 친구가 나오는 건 현실에서 많이 안 나온다고 해서 우려가 컸다. 어떻게 보면 현존하지 않는 선례가 없는 캐릭터이다보니 현실성 문제를 뛰어넘어야 하

는 관문이 존재했다. 그런 면에서 제 자신이 현실과 많이 맞닿은 느낌이 있었다. 여성 운영 팀장을 향한 편협한 시각이라는 것에 대해 저조차도 부딪히면서 이겨내야 하는 면이 있었다. 그런데 점점 극중에서 여성 운영팀장을 인정해주고 차기 단장이라는 말도 해주셔서 뿌듯했다. 또 주변 분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저도 건강하게 지켜온 것 같아 다행이라 느꼈다.

-이세영이라는 캐릭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세영이는 감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확 돌아설 때는 냉철한 이성으로 맺고 끊음이 확실한 캐릭터라고 생각했다. 백 단장이 흔들릴 때마다 차갑게 잡아줄 수 있었고 옳은 말을 해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었다. 두 번의 떠남이 있었다. 한 번은 9회에서 단장직을 내려 놓았을 때와, 강두기(하도권 분)가 타이탄으로 이적했을 때 모든 걸 내려놓는데 그때 백 단장을 붙잡아주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이 친구가 정말 유능한 친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선은 네가 넘었어’라는 대사가 명대사로 꼽히는데.

▶수많은 명대사들도 많았고, 명장면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을 오랫동안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더라. 7부, 8부에 있었던 장면을 끝날 때까지 기억해주는 게 감사했다. 그 장면이 내 캐릭터의 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선은 네가 넘었어를

지르면서 끝낼지 아니면 좀 멋있게 끝낼지 상의해본 결과 소리 지르는 걸로 마무리했다. 사실 제가 계속 절제를 해온 캐릭터라 괜찮을까 싶기도 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또 인간 관계에서 실제로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라 생각했다. 또 차임 선배가 연기를 잘하시다 보니 절로 소리가 나오더라. 다들 연기를 잘 하시다 보니 그 역할에 빠져들어서 연기를 할 수 있었다.

-남궁민과의 호흡은 어땠나.

▶남궁민 오빠는 세영이라는 사람이 드림즈에 진심어듯이 남궁민이라는 배우는 연기에 참 진심어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백 단장을 어떻게 연기할까 항상 고민했던 것 같고, 거기에 저는 호흡을 맞추면 되는 거라 연기하기에 되게 편했다.

-조병규와의 호흡도 좋았다는 평도 많았는데.

▶병규와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참 재주도 많고 똑똑한 친구더라. 할 줄 아는 능력도 많고 돌이 애드리브한 것도 되게 많았다. 항상 현장에서 또래가 없었다보니 유일하게 병규가 또래였다. 저도 실제로 이세영과 한체처럼 실재 누나 동생처럼 했던 것 같다.

-내년이면 어느새 서른이라는 나이인데.

▶사실 나이가 언제 이렇게 들었는지 모르겠다. 작품 하나를 하면 시간이 빠르게 가있다. 안그래



도 29세에 대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훈수 조심해라는 얘기를 듣고 이훈수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됐다. 사실 한국 나이로는 29세일지는 몰라도 외국에서는 살면 더 어리다. 그래서 크게 나이에 대해서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김종도 나무엑츠 대표님이 ‘배우한테 나이가 어땠어’라고 하면서 프로필에서 나이를 다 지우셨다. 나이가 똑같지 않은 캐릭터를 맡을 때도 있다. 제 나이와 똑같지 않은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나이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작품 선택의 기준이 있나.

▶저는 시놉시스를 꼼꼼하게

읽어본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기획의도를 보면 작품이 나아가려는 것이 보이고 캐릭터가 보인다. 또 그 속에 녹아져있는 인물 관계 속에서 내용이 어떻게 될지 유추해볼 수 있다. 근데 시놉시스를 보고 시나리오를 보면 전혀 다를 때도 있다. 그런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나를 증명적으로 보는 것 같다.

-드림즈 팬들에게 남기고픈 말이 있나.

▶드림즈는 앞으로 드림즈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기억과 상상으로 역사를 써내려 갈 것 같다. 오래도록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몬스타엑스, 美 정규로 ‘빌보드200’ 입성...5위 데뷔

서누 “기쁘고 영광”·아이엠 “노력에 좋은 결실”



그들 몬스타엑스가 미국 ‘빌보드 200’ 차트 5위에 올랐다. 23일(이하 현지시간) 빌보드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몬스타엑스의 앨범 ‘올 어바웃 러브’ (ALL ABOUT LUV)가 ‘빌보드200’ 톱5로 데뷔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 빌보드 차트 진입을 예고했다. 닐슨뮤직에 따르면 몬스타엑스는 지난 14일 발표한 첫 번째 미국 정규앨범 ‘올 어바웃 러브’를 통해 ‘빌보드200’ 5위에 첫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14일 발매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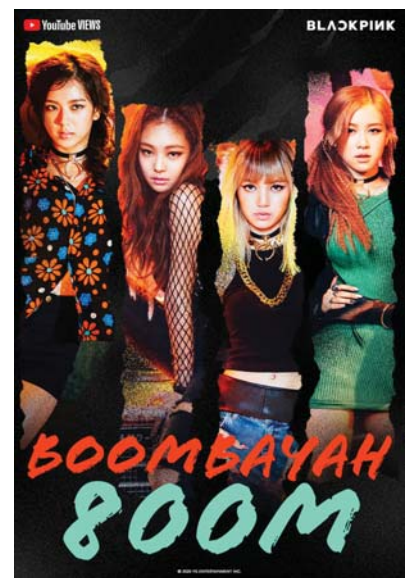
피지컬 앨범 판매량 5만 장을 포함해 총 5만2000 점을 획득, 해당 차트 첫 진입에도 59라는 높은 순위로 오르게 됐다. 이로써 몬스타엑스는 미국에서 첫 발표한 정규앨범으로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200’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호성적을 거두게 됐다. 보아, 소녀시대 태티서, 빅뱅, 투에니원, 방탄소년단, 슈퍼엠, NCT 127 등에 이어 이뤄낸 값진 성과다. 톱 5안으로는 방탄소년단과 슈퍼엠에 이어 세 번째로 더욱 뜻깊다.

‘빌보드200’은 싱글 차트인 ‘HOT100’과 더불어 빌보드 메인 차트로 불리는 앨범 차트로, 앨범 판매량과 함께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수치 환산해 순위를 집계한다. 몬스타엑스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팬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해당 차트 5위를 기록, 차트 진입의 첫 시작을 화려하게 밝혔다. 더욱이 그간 ‘소셜 50’부터 ‘히트싱커 앨범’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월드 앨범’ 톱 앨범 세일즈 등 각종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던 몬스타엑스는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200’에도 오르며 글로벌 발전과 인기를 증명하게 됐다. 몬스타엑스 서누는 소속사를 통해 “데뷔 이후 오랫동안 꿈꿔왔던 빌보드 메인차트인 ‘빌보드200’에서 5위라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많은 문베베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몬스타엑스가 돼서 그 마음에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이엠 역시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몬스타엑스가 단젠가 받

시 이를 수 있는 목표라고 다짐하며 열심히 달려왔다. 그리고 그 노력에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아 정말 행복하다”며 “사실 ‘올 어바웃 러브’는 기존의 몬스타엑스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앨범이다. 새로운 변신이었지만 많은 문베베분들께서 사랑해주셔서 다양한 활동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몬스타엑스로서도 굉장히 뿌듯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이 앞으로 몬스타엑스가 갈 수 있는 많은 길들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몬스타엑스는 이번 앨범 ‘올 어바웃 러브’와 수록 타이틀 트랙 ‘유 캔트 홀드 마이 하트’ (YOU CAN’T HOLD MY HEART)로 현지에서 눈부신 성장세를 자랑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 매체 타임은 해당 타이틀 트랙을 ‘금주의 베스트 곡 5’로 선정했고, 빌보드를 포함해 버라이어티, 피플 등 다수의 현지 언론들이 몬스타엑스 특유의 감성과 매력에 집중 조명하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NBC 채널 ‘켈리 클락슨 쇼’를 비롯해 ‘투데이 쇼’ 등 인기 TV쇼에 연이어 출연하고, 라디오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끊임없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한편 몬스타엑스의 ‘빌보드200’ 차트 순위는 오는 25일 발표된다.

블랙핑크, ‘붐바야’ MV 8억 뷰 돌파...K팝 역사 새 기록 쓰다

블랙핑크가 ‘붐바야’ (BOOMBAYAH)로 K팝 역사에 또다시 새 기록을 세웠다. K팝 그룹으로는 처음으로 유튜브 8억 뷰 이상 뮤직비디오 2편을 보유한 그룹에 이름을 올리며 K팝 역사에 다시 한번 ‘최초’ ‘발자취’를 남겼다. 블랙핑크의 ‘붐바야’ 뮤직비디오는 24일 오전 9시4분 유튜브에 첫 조회수 8억 뷰를 돌파했다. 이를 기념해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블로그에 블랙핑크의 ‘붐바야’ 활동 당시 모습이 담긴 축전을 공개했다. ‘붐바야’는 ‘후파람’과 함께 블랙핑크의 데뷔를 알린 곡이다. 강렬한 드럼 비트와 독특한 신스 사운드가 인상적이고, ‘오빠’를 외치는 후렴구가 강한 중독성을 불러일으킨다. 블랙핑크 데뷔 당시 화제가 된 데 이어 현재까지도 꾸준히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이들의 글로벌한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K팝 그룹 중 처음으로 8억뷰 이상 뮤직비디오 2편을 보유하게 됐다. 블랙핑크는 앞서 ‘뚜두뚜두’ (DDU-DU DDU-DU) 뮤직비디오로 10억



뷰를 달성하면서 K팝 그룹 단일 뮤직비디오로는 최초이자 역대 최고 조회수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바 있다. 블랙핑크는 유튜브 내 최초, 최고 기록을 빠른 속도로 차례 경신하며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다. K팝 걸그룹 최초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1000만 명을 돌파하며 ‘다이아몬드 크리에이터 어워드’에 이름을 올린 블랙핑크의 현재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국내 단일 채널 최대인 3330만 명이다.